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 모색

김경학 지음, 『네팔의 국제이주와 초국가적 가족』(민속원, 2023)을 읽고

박준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I. 머리말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순식간에 멈춰진 국제항공기 운영과 폐쇄된 국경을 보면서 국제이주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글로벌 이주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Gamblen, 2020). 백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국경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실업률과 반이주민 감정 증가 등으로 글로벌 이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화 또한 멈추는 것을 넘어서 퇴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2년 후 이 같은 전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후변화 난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정치적·군사적 대립, 경제 위기 등등의 다중적인 위기(polycrisis)로 인해 국제이주는 다시 급증하였다. 2022년 OECD회원국 과반수 이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주노동자 고용률을 기록하였으며 정주형 이주가 2021년에 비해 26% 증가하였고 이 중 40%를 가족 이민이 차지하고 있다(OECD, 2023). 한국의 경우 2023년 5월에 재한 외국인 규모가 2019년 수준에 근접했으며 2024년에는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최근 한국 정부는 2024년에는 16만 5,000명의 이주노동자를 추가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겨레, 23/12/02).

이렇게 양적으로 국제이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국제 이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전의 상태와 같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경 통제 강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s)의 디지털화와 대중화, 고령화, 여성화, 기후 변화 위기 등등에 의해 국제 이주의 기반이 되는 초국적(transnational) '사회의 장(social field)'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변적이고 불안정하다.¹ 한국의 경우 기존의 이주노동 정책이 야기한 다양한 차별, 인권침해, 착취,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없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는 해소보다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인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는 이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이주를 유형, 동기, 네트워크의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거의 이주와 구분하고 있다(박준규 2018). 더 나아가 이주는 개인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복잡하며 이에 대한 일반화는 잠정적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주는 거리로 켈 수 있는 연장성(extensity), 수로 켈 수 있는 강도(intensity), 시간으로 켈 수 있는 속도(velocity), 송출국과 수용국 둘 모두에게 주는 영향(impact), 이주에 필요한 교통과 통신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수준, 이주 흐름의 방향과 노동 시장 조건을 결정하는 기관(institution),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회계급과 같은 개념적 분석틀로 연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방법은 이주의 동기 또는 원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먼저 이주 연구자들은 글로벌 이주의 근본적 원인을 특정 나라들 간의 식민주의와 후기식민주의 관계와 인접한 나라 간의 불균등한 발전이라고 말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연결성에 초점을 두는 이주 연구는 학제적 연구방법을 도입하며 거시적이고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상호교차적 렌즈(intersectional lens)를 통한 미시적이고 다중지역(multisited)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국제이주 현상을 연구하

¹ 흔히 '초국가적'으로 번역되는 transnational를 본인은 '초국적'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이주민이 국경을 넘나들며 형성하는 초국적 사회의 장은 국가만이 아니라 복수의 국민-국가들 넘나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미 상당 수의 이주민들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모국 또는 조국과 초국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초국적'은 대한민국이 다민족 이민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한국을 도착지로 선택한 네팔의 국제이주와 초국적 가족을 다루고 있기에 탈냉전 이후 나타난 이주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변한 나라로의 국제이주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다. 더욱이 이 책은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의 국제이주를 다루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 책은 연구 지역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네팔 국제이주자와 이들의 가족 간의 상호관계, 즉 출발지와 도착지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이주 흐름과 영역의 초국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 연구와 다르다.

이 책의 저자인 김경학은 국제이주자의 초국적 가족과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주요 대상은 결혼 이주 여성이었으며, 글로벌 이주로 발생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한국인과 가정을 이뤄 한국에서 체류할 결혼이주여성과는 달리, 이주 동기가 '돈 벌기' 위한 것으로 분명하고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은 독신으로 길게는 약 5년 동안 체류한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잠정적 체류자'로 인식되는 이주노동자의 본국 가족과의 초국적 유대는 국내 학계의 학문적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II. 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이 책은 총론과 함께 2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네팔과 한국 사이의 초국적 공간'의 소제목 아래 4개의 장이 구성되어 있다. 1부의 4개의 장은 저자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광주광역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네팔 이주노동자와 이들의 네팔 가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학술지에 발표된 기존 논문들을 편집한 글이다. 1장, 3장, 4장은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와의 심층 인터뷰로 이주자의 이주 과정과 한국 생활 및 네팔 가족과의 초국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2장은 한국으로의 이주로 인해 아들과 남편 및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와 네팔에 남아 있는 비이주자 가족들 사이에 국경을 두고 가족원들이 실천하는 초국가적 돌봄 행위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네팔 초국적 이주자의 가족관계를 이주자 중심의 구술에서 벗어나고자 네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2부 ‘국제 이주와 네팔 사회의 변화’에 해당하는 2개의 장은 국제노동이주가 네팔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 및 2015년 네팔 지진피해 상황과 복구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5장과 6장은 네팔 구릉대에 위치한 카브레팔란초크(Kavre-Palanchok)와 신두팔초크(Sindhupalchok) 지구의 국제노동이주자를 두고 있는 달리트(Dalits)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한국 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모국 가족원과 초국적 가족 관계 유지와 돌봄 실천을 규명하고 있다. 주요 연구 대상인 네팔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고용허가제(EPS)’로 입국한 등록된 비전문 분야 이주노동자이며 광주광역시 공업단지 제조업 분야에 근무한다. 2013년 6월 기준 광주광역시에는 전체 인구 114만 5,631명의 약 2%에 해당하는 2만 3,48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비율은 같은 해 전국 평균인 2.8%에 비해 다소 낮다.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의 산업기반이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비전문 분야 이주노동자는 가족 동반을 할 수 없이 본국에 부모와 자녀 등 주요 가족원을 두고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네팔 초국가적 가족의 일원이다. 다시 말해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규칙적 송금, ICTs를 통한 정서적 지지, 모국 방문 등 초국적 돌봄 실천을 한다.

주로 네팔인들은 말레이시아와 걸프지역으로 국제이주를 하는 데 그다음으로 이주 비율이 높은 곳이 한국이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걸프지역의 노동임금보다 높지만 출국 수속과 출국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버틸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학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제노동이주에는 이주 비용이 든다. 한국행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걸프지역으로 이주 비용과 비슷한 미화 1,000달러 정도다. 그러나 열악한 가정 경제 때문에 이주자는 일반적으로 부채로 이주 생활을 시작한다. 이주 비용은 부모가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부모의 현금이 아닌 가족과 친인척 또는 고리

대금업자로부터 빌린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국제이주는 이주자 단독 기획이 아닌 ‘가족원 전체의 기획’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저자를 강조한다.

부모와 자녀를 돌봐야 할 성인 자녀 또는 개별 가구의 가장으로서 가족원의 복지향상 의무에 떠밀려 한국에 온 네팔 이주노동자는 송금 형식의 경제적 지원, ICTs를 이용한 정서적 지지의 교환, 직접적인 모국 방문 등 일련의 초국적 돌봄 실천을 통해 네팔 가족과의 초국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국제이주의 의미, 국제이주가 가족 구성원에게 끼친 물질적·정서적 영향, 이주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 내 여성 구성원의 역할 및 지위의 변화, 이주를 둘러싼 가족원의 협력과 갈등 등을 정착 국가인 한국의 성인 이주노동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먼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7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가족 배경, 학업 정도, 이주 전 네팔에서의 생활, 이주 배경, 한국 생활, 네팔 가족과의 관계, 모국 방문 경험 등을 알아본 후 이들의 부모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저자는 정착한 국가에서의 이주자의 일상적 생활과 이주자가 처한 작업환경을 직접 관찰하지 않는다면 이주자와 본국 가족 간의 초국적 관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존 국제이주 관련 연구는 네팔 이주노동자 같은 초국적 이주자가 본국의 가족원과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지원과 모국방문 등을 통한 가족 유대를 규명하면서 송금이 이주노동자와 본국 가족원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매개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금 행위를 이주 정착지 시각에서만 보면 송금 행위가 지닌 초국적 가족 유대를 위한 긍정적 양상만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주자를 송출하는 네팔과 이주노동자가 노동하는 현장인 한국이라는 다중 지역에서의 현지 조사는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원의 맥락에서도 송금과 지출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연구에서 부모 대부분과 여성 배우자들은 아들 또는 남편의 한국으로의 국제 이주를 새 집을 짓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노동은 단기간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원은 남편 또는 아들의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에 많은 기대를 건다. 다른 한편 이주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들과

그들의 부모들 간에 송금과 지출을 둘러싼 긴장 관계도 형성된다. 특히 이주자 아들의 수입과 지출 등의 관리 주체가 결합가족의 가장인 아버지에서 분가한 며느리로 옮겨가면서 확대 가족 내의 불협화음이 파열되기 시작한다.

이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남편 없이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 살림살이, 경제활동 등을 병행해야 하는 이주자의 여성 배우자에게는 사회·문화적 역할과 지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었다. 네팔 사회에 남성 가장의 부재로 여성 가장 가구(household headed by women)가 늘어 감으로써, 남아 있는 여성 배우자의 주관적 복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자녀교육, 경제활동, 자산투자 등 주요 사안을 해외에 있는 남편 또는 남편의 결합가족 구성원과의 협의로 여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함으로써, 가정 내 여성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여성 역량강화(empowerment of women) 사례들도 늘고 있다.

3장에서는 국내 네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네팔 본국 가족과 초국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실천하는 ‘초국적 돌봄’ 양상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016년 12월 말 현재 한국 내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를 소지한 결혼이주여성은 전체 12만 6,923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동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 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약 1,120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네팔 출신 이주여성은 전체 약 76%에 해당하는 847명으로 절대다수다.

전반적으로 부권사회로서 여성이 남성에 대해 종속적이며 남아가 선호되는 네팔은 정부가 여성의 국제이주를 제한하고 있어 인접 국가인 인도 국경을 통하거나 이민 중개업자를 통한 이주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국제이주를 하므로 여성 이주자의 규모나 이주대상 국가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 이주를 선택한 네팔 여성은 대략 2005년부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팔 결혼이주여성은 카트만두의 관광객이 모이는 핵심지역인 타멜(Thamel) 등에 성업 중인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서류를 작성하고 간단한 결혼식을 한 후 몇 개월 후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이주를 한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네팔 여성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저자가 만난 13명의 이주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시골 출신이지만 결혼이주 당시에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한

바 있으며, 20대 중반의 연령대인 어린 여성들이고,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 또한 나이 들어 재혼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여성은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했던 여성들이다.

네팔 결혼 이주 여성들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 네팔 방문과 직접적인 돌봄 실천, 가족의 한국 초청을 통한 노동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본국 가족에 대한 돌봄 실천을 초국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본국 가족원에 대한 초국적 돌봄과 그 성격은 이주여성의 형제자매 서열에 따른 역할 기대, 자녀의 여부, 경제활동 여부, 친정 가족원의 국내 체류 여부 등에 따라 그 강도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맏딸의 경우 한국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은 이주 초기부터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과 본국 방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이주여성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송금 지원을 못하지만, 출산과 육아 지원 명목으로 친정 가족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장기적인 노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장에서는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송금이란 초국적 실천이 이주당사자와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과의 초국적 가족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송금은 초국적 이주자의 본국 가족과 초국적 관계 유지에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돌봄과 애정의 전달 매개로서 가족 결속의 강력한 징표가 된다. 이처럼 송금은 네팔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유지와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다.

초국적 이주자의 송금은 이주지에서의 수입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를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한 ‘돈의 흐름’을 넘어, 송금 수령과 배분 및 지출을 포함하는 ‘현금 순환(monetary circulation)’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Global Smart’같은 공식적인 글로벌 외환 송금 앱이 현재처럼 보편화되기 이전에 국내 네팔 노동자 대부분은 은행이 아닌 ‘훈디(Hundi)’ 같은 ‘비공식 송금 체계’를 이용했다. 그러나 저자가 인터뷰한 모든 이주자는 송금 즉시 네팔 가족들이 현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이용 가능한 지역이면 장소 불문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는 공식 송금 방식인 ‘글로벌 스마트 모바일 뱅

킹'을 이용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의 일상적 소비뿐만 아니라 이주자 본인과 가족의 미래의 삶을 위한 저축과 투자 등을 위해 송금을 관리하고 지출 책임을 지는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일정 액수를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다. 이들의 송금은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이 아니었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송금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자녀처럼 '진한 피'가 흐르는 범위 안에서 공유·소비됨으로써 नेपाल 초국적 가족의 '가족다움' 구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제이주가 가족 간 도덕적 차원을 불가피하게 포함하고 있기에, 송금을 둘러싸고 이주자와 남은 가족 간에는 사회적 의무와 가족의 기대감이 동반된 '초국적 도덕성'에 기초한 서로에 대한 도덕적 실천을 요구한다. 기대에 못미친 송금, 송금액의 축소, 송금 수령자 변경, नेपाल 가족의 부적절한 송금 사용, 무모한 송금 요구 등등 초국적 가족 간의 상반된 도덕성 요구와 기대 및 실망은 송금과 관련한 '도덕적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로서, 이는 이주자와 남아 있는 가족 간 관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가족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 가족과 본국 가족 간에 형성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성격은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에서 시작하여 출산과 육아를 위한 친정 가족원의 초청과 동거의 단계를 거쳐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과정에서 이주여성 본국 가족과의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नेपाल 결혼이주여성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들이 이주여성 국가인 नेपाल과 नेपाल 방문에 대한 호감도와 유용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결혼 후 नेपाल을 방문한 한국인 남편이 거의 없고, 한국을 방문한 이주여성 가족원에 대한 무관심과 무례함 그리고 2015년 नेपाल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नेपाल 가족원에 대한 무관심 등에서 드러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नेपाल 이주 여성가족과 본국 가족 간의 돌봄을 통한 일련의 초국가적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이주여성 가족의 자녀교육이나 은퇴 설계 내에 नेपाल 본국 가족원과의 연계를 찾기 힘들며, 이러한 가능성은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형편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둔 이주 여성조차 नेपाल의 경제발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नेपाल의 학교 교육의 질과 시설의 빈약함 때문에 네

팔에서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5장에서는 네팔 달리트 국제노동이주자의 송금과 이주경험이 달리트 개인과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신념의 변화와 맺는 관계들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32km 떨어져 있는 카브레팔나초크 지역에 대한 단기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기초 자료와 관련 문헌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뤘다. 첫째, 네팔 사회의 카스트와 농업 관계 속에서 달리트와 비달리트(상위카스트·종족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성격을 살펴 보았다. 둘째, 카브레 지구 달리트 국제이주의 특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국제노동이주와 달리트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1854년 네팔 정부의 시민법인 ‘물루키 아인’에 따르면 네팔 국내의 다양한 카스트와 종족집단들은 다섯 등급으로 구분된다. 물루키 아인에 따르면 네팔 인구는 ‘성사착용 카스트’, ‘노예화할 수 없는 음주 카스트’, ‘노예화할 수 있는 음주 카스트’, ‘부정하지만, 접촉 가능한 카스트’, ‘불가촉천민 카스트’ 등 다섯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네팔 정부는 법적 제도를 통해 달리트에 대한 차별행위를 근절시키려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달리트에 대한 차별이 점차 약화하게 된 계기는 마오이스트의 인민전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민전쟁이 개별 달리트 가족의 생계해결과 생활수준 향상을 담보하지는 못했으며 달리트의 비 달리트, 특히 부유한 상위카스트와 네와르 종족집단 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지속되었다.

달리트의 국제이주는 지난날 상위 카스트와의 봉건적 성격의 경제적 교환관계, 구체적으로는 의복과 구두 제작 및 수선 등의 기술직에 대한 의례적 ‘부정’이란 종교적 관념에 기반을 둔 불평등한 전통적 노동관계를 단절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이주는 카스트 관계 외 농업관계의 변화도 촉진하고 있다. 다수의 중간 계층 이상의 농부들에게 안정된 농업노동력을 제공했던 달리트들이 이주노동의 길에 합류하면서 야기된 농업노동력의 부족으로, 가난한 달리트 농업노동자의 분익소작농으로의 전환이 쉬워져 달리트의 농업관계에서의 협상력이 점차 증진되고 있다. 달리트 해외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단지 생활수준 개선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달리트의 생각과 태도에 변

화를 가져오는 ‘사회적 송금’을 통해 달리트 가구의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승도 발견된다.

국제노동이주에서 비롯된 달리트의 사회·경제적 자본이 상위 카스트와의 관계변화에서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사회·정치적으로 배제되었던 달리트 집단의 권리주장이 가능하게 만든 혁명집단의 사회·정치적 지형의 조성이었다. 사실상 마오이스트 혁명과 국제이주는 네팔 내 카스트와 농업관계에서 달리트에 대한 차별과 종속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6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던 신두팔초크 지구의 달리트 마을의 여성들이 경험한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카스트, 계급, 젠더 간의 상호교차적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국제 이주에 대한 연구에서 상호교차적 렌즈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상호교차성은 사회적 불평등 체계의 본질과 영향을 규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차별과 특권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범주가 중층적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전제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는 개별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범주 간의 상호작용과 상관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15년 네팔 지진 시에 달리트 여성이 경험한 피해와 구호 및 재건 과정을 이해하는데 상호교차성의 개념을 접목하는 것은 젠더, 카스트, 계급 및 국제 이주 등의 두 개 이상의 차별 범주를 동시에 바라봄으로써, 지진이란 재난의 상호교차적 작동이 발생시킨 경험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 상황에서 지진을 경험한 달리트 여성은 여러 요인이 상호교차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여성의 사회·경제적, 건강과 위생의 취약성에 중층적으로 노출되었다. 남편 부재 중인 달리트 여성들은 구호품을 받는 데도 차별을 경험했고, 가옥 재건 비용 수령도 늦게 받았다. 신두팔초크 달리트 마을의 불가촉천민인 여성들이 지진의 위기에서 직면했던 다양한 취약성은 젠더, 최하위 카스트 지위인 달리트, 무토지 농촌노동계급 그리고 국제이주 요인과의 상호교차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재난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남성의 국제 노동 이주라는 변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지진 이후 여성 가장 가구와 국제이주 남성 배우자 간의 피해복구 대응 전략은 즉각적 귀국보다는 남아 있는 여성에게 과중한 책무를 부

과하는 성격이었다. 국제 이주로 야기된 남성 배우자의 부재는 남아 있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지진피해를 일선에서 경험하게 했지만, 가난한 달리트 가구의 복구와 회복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 국제 이주노동의 유지였던 것이기도 하다. 이주당사자 남편들이 피해복구를 위한 조속한 완전 귀국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의 지속 때문이었고, 이들의 일부는 귀환 후 복구비용 충당을 위해 재이주를 선택하였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지진과 남편의 국제이주노동이 만들어 낸 진퇴양난의 딜레마는 남아 있는 여성 가장의 젠더, 카스트, 계급의 상호 교차성이 빚어낸 증폭된 피해 경험이었으며, 남성 배우자의 이주노동 지속은 경제적으로 한계적 상황에 있는 달리트 가족의 생존전략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같은 통찰력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책의 연구방법론적 의의와 향후 과제

이 책의 연구방법론적 의의와 향후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연구방법론적 의의는 저자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급속히 확산되는 국제이주 현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상호교차적 렌즈를 통해 네팔 국제이주자의 초국적 사회의 장을 규명하고자 온라인 인터뷰와 다중지역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초국적 사회의 장은 한국과 네팔 그리고 걸프지역과 같은 다른 국가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주 경험과 가족관계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같은 초국적 사회의 장 위에 형성된 초국적 가족관계를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착 국가인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이주의 의미, 국제이주가 가족 구성원에게 끼친 물질적·정서적 영향, 이주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 내 여성 구성원의 역할 및 지위의 변화, 이주를 둘러싼 가족원의 협력과 갈등 등을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14년부터 2020년에 걸쳐 다중지역 인류학적 현지 조사와 문헌연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여러 논문들을 사진 자료와 함께 편집한 결과물

이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중모드인류학(multimodal anthropology)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모드인류학은 주로 미디어와 영상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서 디지털화 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며 연구하는 것과 기존의 연구 수행 방식을 재고하고, 다양한 미디어 기술과 디지털 기기가 연구 참여자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중모드인류학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설정하고 연구에서 얻는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인류학과 결을 같이 한다. 국제 이주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한국의 이민정책을 설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향후 과제인 것이다.

다른 한편 나는 이 책의 장마다 실린 사진들을 보면서 문득 책의 내용이 민족지 영화와 같은 영상으로 공유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몇 장 만으로도 독자들은 책에서 등장하는 네팔 국제이주자와 그들의 가족 이야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영상과 음향이 같이 전달되는 민족지 영화로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저자는 간헐적으로 네팔 국제이주자들과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스마트폰과 ICTs를 사용하여 '원거리 훈육'이나 온라인 송금 등등 초국적 관계를 실천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또한 다중모드인류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밀카 매디아노우(Mirca Madianou, 2016)은 영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장기적인 현지 조사를 통해 초국적 가족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실천들을 연구하여 스마트폰의 중요한 역할을 규명한 바 있다. 디지털 인류학자 다니엘 밀러(Daniel Miller)는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인류학자들과 함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유럽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는 노인 인구의 스마트폰 사용을 연구하여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물질성과 정동(affective)이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Miller et al., 2021).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상호교차적 렌즈를 통한 국제이주와 초국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인류학의 경우 이 책이 보여 준 다중지역 인류학적 현지조사 장점이 다중모드인류학의 연구방법론과 결합하여 더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밀러의 연구 프로젝트처럼 여러 연구자들이

동시에 다수의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협력적 연구야말로 급변하는 국제 이주와 초국적 관계의 복잡성과 중층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투고일: 2023년 12월 2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4일

참고문헌

- 박준규. 2018. “16. 새로운 상상의 시대로서 전지구화.” 권숙인 외. 『현대문화인류학: 인간과 문화에 대한 열 일곱 가지 주제들』. 형설출판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5월호. 법무부.
- 이재호. 2023. “이주노동자 16만 5천명 데려온다는 정부, 대책도 없으면서.” 『한겨레』 12월 2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8786.html?_fr=mt2
- Gamblen, A. 2020. *Migration and Mobility after the 2020 Pandemic: The End of an Age?*
- Madianou, M. 2016. “Ambient Co-presence: Transnational Family Practices in Poly-media Environments.” *Global Networks* 16(2), 183-201.
- Miller, D. et al. 2021. *The Global Smartphone: Beyond a Youth Technology*. London: UCL Press.
-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0f40584-en>.